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역사적 비교*

박 사 명**

목 차

- I. 서 론
- II. 수탈양식과 계급형성
- III. 인도네시아: 국가독점과 계급구조 미분화
- IV. 필리핀: 자유무역과 계급구조 양분화
- V. 결 론

I. 서 론

탈식민화 이후 제3세계에서 국가(state)와 사회(society)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은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각 사회의 계급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과정에서 토착사회의 경제적 지배계급이 형성된 정도에 따라 탈식민화 이후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에 있어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이(variation)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사회의 경제구조에서 근대적 비농업부문은 외국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토착자본의 영역은 적어도 그것이 존재했었던 경우에는 상업작물의 재배 및 수출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탈식민화 이후 초기의 수입대체적 공업화의 과정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화하게 되는 것은 농업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포섭되어 있었던 근대적 상업농부문의

* 이 글은 필자의 학위논문(Park 1988) 제2장 제1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초고에 대한 서울대 오명석 교수의 날카로운 논평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지주계급이었다.(Carroll 1965, 73-74; Wurfel 1979, 224: 235-38)

식민지 토착사회의 그와 같은 경제적 지배계급이 강력한 경우에는 그들이 탈식민화 이후 국가기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이익'에 따라 국가권력을 교란하거나 전유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하여, 그러한 지배계급이 허약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료기구가 사회에 군림하여 독자적 '국가이익'에 따라 사회세력을 통제하거나 재편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 생산구조의 탈식민화를 위한 공업화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국가는 사회에 대하여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탈식민화 이후 제3세계에서 국가와 사회 사이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역학관계를 규정하게 되는 각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조는 단순화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극단적 양분화(兩分化)와 극단적 미분화(未分化)의 양극 사이에서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제3세계의 식민지사회에서 계급구조의 그와 같은 다양성을 초래하였던 역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비교사(比較史)적 접근(Skocpol and Somers 1980, 174-97; 김웅진 외 1992, 117-46)의 한 시도이다.

제3세계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동부아프리카는 각각 계급구조의 양분화와 미분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Hayami et al. 1990, 29-33; Saul 1979 참조) 그러나 이 두 지역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는 두 지역간의 지리적, 역사적, 유형적 유사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일반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¹⁾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해역의 서로 근접한 두 군도로서의 지리적 유사성, 4세기에 가까운 장구한 식민화 과정의 역사적 유사성, 공동체적(communal)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한 식민화 이전의 자급적 생산구조 및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으로 인한 식민화 이후의 종속적 생산구조의 유형적 유사성 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수탈이 초래한 토착사회의 계급구조에 있어서는 각각 '동부아프리카형' 및 '라틴아메리카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대조적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사적 분석을 위한 이상적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대조적 계급구조의 형성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식민지사회에 형성된 다양한 계급구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국주의의 다양한 식민지 수탈양식(收奪樣式)이라는 대안적 가설을 제출한 다음, 그러한 가설의 검증을 위하

1)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된 비교(controlled comparison)를 위한 사례의 선택 기준으로서 Dising은 지리적, 역사적, 유형적 유사성을 들고 있다(Dising 1972, 187-91).

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대조적인 수탈양식이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구조적 특성, 그리고 그것이 계급형성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I. 수탈양식과 계급형성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장구한 식민화과정의 역사적 유사성과 자본주의 세계 체제 편입에 따른 경제적 종속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두 식민지 토착사회에 형성된 계급구조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인 것이었다. 두 식민지사회 모두에서 소규모의 전통적 자급농부문을 제외한 광업, 상업, 금융, 무역 등 근대적 비농업부문은 외국자본이 지배하였으나, 농업부문 가운데 상업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대규모의 근대적 플랜테이션(plantation)부문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외국자본, 필리핀의 경우에는 토착자본이 지배하고 있었다.(Golay et al. 1969)²⁾ 식민지화와 상업농화를 통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던 토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관계의 변동이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을 제외한 토착사회에 관한 한 필리핀에서는 토지소유의 고도의 집중에 따라 계급구조의 극단적 양분화가 초래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소유의 광범한 분산에 따라 계급구조가 전반적 미분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920년에 창당된 인도네시아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조차도 “대토지소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촌락의 집단적 공동소유가 지배하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에서 토지개혁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었다.(van der Kroef 1963, 32) 1927년에 창당되고 공산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던 인도네시아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의 지도자 수카르노(Sukarno 1970, 158)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로 인하여 “사실상 마르헨(Marhaen)계급 하나로만 구성된 사회”로 전락하였으므로 계급투쟁을 위한 물질적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르헨은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생산수단--토지--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르주아와는 달리 빈곤에 허덕

2) 제3세계 각 지역에서의 생산구조의 그러한 다양성은 탈식민화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모든 생산부문을 전반적으로 내국자본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종속과 근대적 생산부문을 외국자본이 지배하던 비지(飛地: enclave) 상황에서의 종속 등 두 가지의 ‘종속상황(dependency situation)’에 대한 구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Cardoso et al. 1979, viii- x x).

이는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빈농의 이름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탈식민화 이후 토지집중이 일정하게 진행된 이후인 1973년에도 소유농지 1 ha 이하의 빈농이 70.3%, 1-5 ha의 중농이 27.5%, 5-10 ha의 부농이 1.6%, 10 ha 이상의 지주가 0.6%로서, 극소수의 대지주를 제외하면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지주계급이 사실상 소멸해 버린 한국의 1965년 현재 각각 67%, 32%, 1%, 0%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빈곤의 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토지소유의 분포를 드러낸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당한 규모의 농가를 감안하더라도 대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상대적 규모는 필리핀에 비하면 소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농지구모별 농가비율 및 평균 농지구모

농지구모 (ha)	인도 (1954/55)	필리핀 (1960)	인도네시아 (1973)	한국 (1965)
-0.5	19.4 %	4.1 %	45.6 %	35.0 %
0.5-1.0	—	7.4	24.7	32.0
1.0-5.0	43.5	69.5	27.5	32.0
5.0-10.0	18.9	13.4	1.6	1.0
10.0-	18.2	5.6	0.6	0.0
합 계	100.0 %	100.0 %	100.0 %	100.0 %
평균규모	2.30 ha	2.58 ha	0.99 ha	0.91 ha

출처: Montgomery et al. 1980, 359.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일련의 토지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1960년 현재 소유농지 1 ha 이하의 빈농이 11.5%, 1-5 ha의 중농이 69.5%, 5-10 ha의 부농이 13.4%, 10 ha 이상의 지주가 5.6%로서, 토지개혁이 크게 부진하였던 인도의 1954/55년 현재 각각 19.4%, 43.5%, 18.9%, 18.2%와 유사하다. 더욱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방대한 규모의 농가를 고려할 경우 다수의 대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모--1960년 현재 10 ha 이상 지주계급의 토지는 총경지면적의 33.2%(Hayami et al. 1990, 29-33)--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토지소유의 분포를 시사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 계급구조의 형성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작업이 적지 않게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론적 모색이 개별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작업에 그치고, 일반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

구는 아직 시론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oserup 1965; Geertz 1963; Larkin 1971; van den Muijzenberg 1975) 더욱이 그러한 시도들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이론적 명제들은 그 분석수준이 대부분 거시적이거나 아니면 미시적인바, 일반적으로 거시적 이론이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가능성이 크다면, 역으로 미시적 이론은 '개인주의적 환원론(individualistic reductionism)'의 가능성이 크다.

문화적 전통이나 토지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통하여 토지소유의 분산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 유사한 문화전통과 인구밀도를 지닌 사회에서의 토지소유의 집중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별 농민들의 의식형태나 영농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의 분산을 설명하려 할 경우, 유사한 농민의식과 영농방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토지소유의 집중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인도네시아에 관한 비케(J. H. Boeke)의 이른바 '이중사회(dual society)'론에서 전형화된다.(Boeke 1961, 163-92)³⁾ 그에 의하면, 식민화를 통한 인도네시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은 새로운 고용기회가 수반되지 않는 공업제품의 유입만을 증대시킴으로써 토착사회의 구조적 다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단순화를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발전적 역동성이 결여된 '동양문화'의 정태적 특수성에 있다.(Boeke 1961, 172-73)

자본주의는 새로운 제품을 제공했을 뿐, 새로운 노동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동양사회의 유형을 풍부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사회활동의 (다양한) 형태들을 필요없는 군더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사태경과의 근본적 원인은 의문의 여지 없이 **동양 민중의 문화에는 발전을 위한 아무런 역동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양의 발전은 동양의 축소와 그 분화의 감소를 의미하였다.(팔호 및 강조는 필자)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부문이 '정태적'이고 '전통적'인 전(前)자본주의적 부문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동양 속의 서양의 비지(飛地: enclave)'로서 기계적으로 양립하는 데 그칠 뿐인 인도네시아 경제의 그러한 이중구조적 특성은 '과도적 국면'이 아니라 '영구적 성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oeke 1954, 293-94; Boeke 1961, 174-76) 그리고 그와 같이 거시적인 문화적 관점은

3) '이중사회'론은 1910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개별적 농민의 의식에 내재하는 비물질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전자본주의적 공동체의식이 생산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저해하고 있었다는 다른 미시적 관점의 연구들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3세계의 탈식민화와 신국제분업의 전개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3세계로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광범한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계급분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전자본주의적 사회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에 따라 다양한 주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역동성은 이미 식민지시대에도 일정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형성되었던 매우 대조적인 계급구조는 바로 그와 같이 단순화된 '동양문화'의 정태적 특수성론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개념화된 '동양문화'의 정태적 특수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식민지사회의 구조적 정체성(停滯性)을 설명하려 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외방제도(Outer Islands)나 필리핀에서의 상업농화과정에 대한 농민의 대응에서 드러난 역동성은 해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히긴스(Benjamin Higgins)는 필리핀과 태국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이중구조는 식민지적 상황의 보편적 결과라는 뵈케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던 데 반하여, 필리핀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근대적 부문이 거의 필리핀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Evers 1980, 80-82) 실제로 식민지시대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상투적인 정태적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대단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식민지사회의 이미지를 제출하고 있다.(McCoy et al. 1982, 1-18)

기어쯔(Clifford Geertz 1963)는 인도네시아 식민지사회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뵈케의 이중구조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통적 부문--외방제도를 제외한 자바(Java)지역--에서의 '농업의 퇴화(agricultural involution)'를 설명하면서, 인구의 급증에 따른 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의 집중을 통한 구조적 변화가 억제되고 기존의 영세적 토지소유의 구조 안에서 복잡한 소작관계와 조밀한 경작기술을 비롯한 고도로 집약적인 영농방식이 발전하면서 토지소유의 분산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밀도라는 거시적 총량지표와 영농방식이라는 미시적 현상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는 그러한 설명은 유사한 인구과밀의 조건에서도 토지사용의 집약화와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필리핀의 경우를 해명

할 수 없게 된다.(Geertz 1963; Larkin 1971; van den Muijzenberg 1975) 더욱이 그와 같이 고도로 내포적인 토지사용 양식의 발전은 토지소유의 분산에 대하여 그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의 분산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어즈 스스로도 뵈케에 대한 비판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식민지정책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창출된 조건'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다.(Geertz 1963, 60)

사실 제3세계의 식민화과정에 있어서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만 한다.(이병천 외 1992, 123)"⁴⁾ 식민화 이전의 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이 장기적인 식민화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온존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영속적인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식민화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소극적으로 방치되는 등 효율적인 식민지수탈을 위한 제국주의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역동적인 변화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세계 식민지사회에서의 다양한 계급구조의 형성과정은 거시적 또는 미시적 분석수준보다는 제국주의의 구체적 식민지정책이라는 중범위적 분석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식민지 토착사회에서 서로 대조적인 계급구조의 형성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국가독점(state monopoly)을 통한 직접적 수탈 및 자유무역(free trade)을 통한 간접적 수탈**이라는 서로 대조적인 식민지 수탈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여기에서 국가독점은 식민지잉여(colonial surplus)의 생산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이전에 이르는 수탈과정 전체가 다른 외국자본으로부터의 대외적 경쟁 및 토착자본으로부터의 대내적 경쟁이 배제되고,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 또는 그와 연계된 본국자본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무역은 식민지잉여의 생산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이전에 이르는 수탈과정 전체가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 및 본국자본을 통한 독점적 지배가 배제되고, 다른 외국자본으로부터의 대외적 경쟁

4) 브와이에(Robert Boyer)는 "자본주의가 그 불변의 요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부단히 새로운 조직형태,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입지를 창안해야 한다. 불변의 요소가 자동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태적 관점은 역사의 모든 구조적 및 문화적 재생산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병천 외 1992, 123)

5) 그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기하는 연구들조차 그것을 중심적 명제로 부각시켜 체계화하거나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Geertz 1963; Larkin 1969; van den Muijzenberg 1975) 예컨대 van den Muijzenberg는 '식민지수탈(colonial exploitation)'이라는 개념을 직접적 수탈과 간접적 수탈로 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여러 주요한 변수들 가운데 하나로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및 토착자본으로부터의 대내적 경쟁에 개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제국주의의 수탈양식은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일 뿐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급형성 과정에서의 수탈양식과 다른 부차적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여기에서는 유보된다.

식민지잉여의 생산을 위한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 그리고 식민지잉여의 수집과 이전을 경쟁적 시장기제 대신에 식민지국가의 독점적 관료기구에 의존하는 경우, 관료적 위계구조 이외의 수탈을 위한 사회적 매개--토착 지주계급 등--의 필요성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식민지잉여의 생산을 위한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 그리고 식민지잉여의 수집과 이전을 식민지국가의 독점적 관료기구 대신에 경쟁적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경우, 수탈을 위한 사회적 매개--토착 지주계급 등--의 필요성이 최대화된다. 그러므로 각 식민지경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편입을 매개하는 제도적 기제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이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잉여의 생산 및 이전을 관장한 수탈의 직접적 주체가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인가 아니면 토착사회의 지주계급인가에 따라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조가 대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적 가설이다. 역사적으로 18세기 말까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 식민지잉여의 수탈을 관료적 위계구조를 통한 경제적 강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수탈양식의 대조적 성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상업작물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토지가 자본축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는 19세기 초반 이후에 두 식민지사회에서 첨예하게 대조적인 수탈양식이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Ⅲ. 인도네시아 : 국가독점과 계급구조 미분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1798)를 통한 2세기에 걸친 식민화와 프랑스(1801-1810) 및 영국(1811-1816)에 의한 일시적 관할에 뒤이어, 네덜란드는 말레이(Malay)반도와 싱가포르(Singapore)에 대한 영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인도네시아군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회복하게 된다. 인도네시아군도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점적 패권이 가능했던 것은 나폴레옹(Napoleon)의 몰락 이후 유럽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네덜란드를 강화하여 프랑스를 견제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영국의 전략적

포식 때문이었다.(Ricklefs 1981)

식민지의 보다 효율적인 수탈을 위하여 자유무역적 대안과 국가독점적 대안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실험을 거친 네덜란드 중상주의국가는 1830년에 이르러 이른바 강제재배제도(Cultivation System; Culture System)라는 국가독점적 수탈기계에 정착하게 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탕수수, 커피, 담배, 차, 후추 등 주요 상업작물의 재배와 수집을 위하여 강제노동과 강제공출에 의존하였던 동인도회사시대의 수탈기제를 식민지국가의 공식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그러한 국가독점적 수탈기제의 선택으로 인하여 머지 않아 “자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Furnivall 1956, 222)”

강제재배제도는 인도네시아 농민들에 대하여 매년 그 소유 농지의 최소한 5분의 1(후에는 3분의 1)을 식민지국가가 지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할당하거나, 아니면 매년 그 해의 최소한 5분의 1(후에는 3분의 1)을 국영농장 또는 식민지 하부구조의 건설현장에서 부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토지와 노동의 조직적 동원을 통한 식민지잉여의 생산으로부터 네덜란드 본국으로의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수탈과정 전체를 식민지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수탈기제는 곧 파격적 성공을 거둠으로써 식민화의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네덜란드 본국에서의 가속적 자본축적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리클레프스(M. C. Ricklefs 1981, 117)가 요약하는 바와 같이,

1831년에 이미 식민지 정부재정의 균형이 회복된 다음, 그 후에는 옛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사의 밀린 채무가 정리되고, 네덜란드 본국으로 거액의 송금이 개시된다. 그와 같은 이전 자금이 1850년까지는 네덜란드 본국예산의 약 19%, 1851년에서 1860년까지는 약 32%를 충당하기에 이른다. ... 그러한 세입이 네덜란드 국가경제를 일으키게 되자, 암스테르담(Amsterdam)은 다시 열대작물, 특히 커피와 설탕의 주요한 세계시장으로 부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업작물 재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농민들 사이에 토지에 대한 서구적 사유제도의 확산과 토지소유의 집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강제재배제도라는 국가독점적 수탈기제가 본질적으로 자급적 촌락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토지와 노동을 조직하고 동원하던 식민화 이전의 공동체적 생산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네덜란드로서는 당시 자국의 민간자본이 식민지잉여의 효율적 수탈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에는 아직 허약한 단계에 있었으므로, 상업작물의 생

산을 위한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을 비롯한 생산과정 전체를 식민지국가로 하여금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었다.(Geertz 1963, 63) 그러한 상황에서 식민지국가로서는 촌락공동체의 대규모 농지단지와 강력한 자치조직을 통제하는 것이 파편화된 무수한 영세농지들과 개별화된 다수의 소유자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Kahin 1952, 14)

식민화 이전의 공동체적 생산관계가 식민화 이후 국가독점적 기제를 통한 수탈과정에서도 그 본질적 성격을 온존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및 구조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토지에 대한 농민의 개인적 권리가 지배적이었던 일부 지역에서까지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대한 촌락공동체의 집단적 권리를 복원하려고 하였던 네덜란드 식민지국가의 정책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었다.(van der Kroef 1960, 421)

한편 토착농민의 입장에서도 강제재배제도의 맥락에서는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유지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산관계에서 농민의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에는 관습적으로 그 토지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부역의 의무가 수반되고 있었다.(Elson 1984, 12) 강제재배제도가 토지와 노동에 대한 공동체적 지배를 존속시킴에 따라, 토지의 사용에 수반되는 노역의 부담은 더욱 과중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그러한 강제적 노역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적 생산관계에서의 토지점유의 광범하고 균등한 분산이 오히려 그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었다.(Furnivall 1939, 140)

그러므로 토지와 노동에 관한 공동체적 지배의 유지와 그로 인한 토지점유의 분산은 그것이 일정하게 식민지국가 및 토착농민 양자의 요구에 동시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재배제도와 같은 국가독점적 수탈기제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한 수탈이 강화되면서 토지점유가 균등하고 광범하게 분산되고 식민지사회가 전반적으로 빈궁화됨에 따라, 네덜란드 본국정부는 1865년 “군수(Regent)들이 자바 토착사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소득집단이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네덜란드에게도 현명하다”고까지 공언하기에 이른다.(Reid 1980, 451) 그러나 식민지국가의 관료적 위계구조에서 식민지체제에 포섭된 토착 귀족계급에 허용된 최고위직이었던 군수급조차도 조만간 식민지국가가 보장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귀족적 특권이 박탈됨으로써 봉급

6) 이들은 식민지국가가 보장해 주었던 관직부속의 농지, 공출작물의 일부, 사용(私用)의 부역동원 등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권리를 19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며, 20세기에 들어서면 군수직의 세습원칙마저 거의 유명무실하게 약화되어 버린다.(Sutherland 1979, 11-13)

에만 의존하는 전형적 직업관료로 전락하고 만다.⁶⁾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축적을 토대로 네덜란드 본국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의 국가독점적 강제재배제도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간자본의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경제제도(Liberal System)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자유주의자들의 진정한 의도는 식민지에 대한 수탈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수탈에 있었다. 이와 관련된 1870년대 초의 새로운 농업관계법은 토지에 대한 촌락공동체의 집단적 지배를 개인적 소유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경작지의 양도가 금지되고, 모든 미경작지는 식민지국가의 국유재산으로 규정된다. 네덜란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플랜테이션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미경작지를 식민지국가로부터 75년까지 임차하고 경작지를 농민으로부터 5년에서 20년까지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된다.

그러한 농업관계법으로 인하여 자바지역의 총경지면적에 대한 형식상 사유농지의 비율이 1882년 47%, 1932년 83%로 확대된다. 더욱이 20세기 초 이후 투자의 중심지역이 자바에서 외곽도서로 전환됨에 따라, 식민지의 총수출에 대한 외방제도의 기여도가 1900년의 약 3분의 1에서 1938년에는 약 3분의 2로 상승한다. 1938년 현재 자바와 외방제도 사이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던 플랜테이션의 수는 모두 약 2,400개, 250만 ha에 이른다. 외방제도에 집중되어 있었던 소규모 자영농의 상업작물 수출에 대한 기여도 또한 급증하여, 1931년에 이르면 카카오의 95%, 담배의 79%, 커피의 57%, 고무의 35%를 차지하게 된다.(Kahin 1952, 17; Geertz 1963, 84-86; Panglaykim et al. 1969, 3; Furnivall 1939, 321)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한 '자유화(liberalization)'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와 독점적 본국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부구조가 여전히 대규모 플랜테이션부문을 지배하고 있었다.(Wertheim 1959, 100) 이 대규모의 네덜란드 상사들은 전국적 금융조직과 수출입무역의 독점을 통하여 대규모의 플랜테이션부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토착농민에게만 허용된 소규모 자영농 부문을 포함하여 식민지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한 식민지 수탈기제에서 네덜란드 상사들에 종속된 화교 중간상들이 인도네시아 토착농민으로부터 상업작물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현금과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지수탈을 증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제재배제도에서 자유경제제도로의 정책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토착사회의 계급구조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분화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예컨대 1903년 인도네시아 농민의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2.8 ha 미만이었으며, 1925년 현재 자바와 마두라(Madura) 전체에서 17.7 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3,387호에 불과하였다. 토지집중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독립 이후 1957년에도 자바 농가의 약 90%가 1 ha 미만, 전체 농가의 1% 정도만이 10 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최대규모의 농가마저도 네덜란드 본국자본이 지배하던 플랜테이션에 비하면 극히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예컨대 독립 직후 자바 서부의 한 농촌지역에서 6대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는 55 ha 정도에 불과하였다.(Wertheim 1959, 114; Geertz 1963, 98; Kahin 1952, 20) 그러므로 독점적 본국자본이 지배하던 근대적 플랜테이션부문을 제외하면, 농지의 영세적 파편화와 농민의 전반적 빈농화로 인한 '빈곤의 평등'이 식민지사회를 풍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플랜테이션 회사들이 농민의 경작지를 침차하였던 지역에서도 자유경제제도에 의한 강제재배제도의 대체가 곧 강제재배제도를 통하여 온존되었던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전면적 해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토지에 대한 형식적 사유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대 말기까지도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에 있어서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성격은 존속되고 있었다.

사실, 이른바 '자유화' 정책은 효율적 식민지수탈을 위한 식민지국가의 역할이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을 포함한 생산과정 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부터 네덜란드 독점자본의 각종 농산물 가공기업과 그에 종속된 촌락공동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간접적 통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Geertz 1963, 83) 따라서 '자유화' 개혁은 식민지체제에 포섭된 토착 관료집단의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상업작물 생산과정 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기능을 식민지국가로부터 네덜란드 독점자본에 이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형식적 사유제도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식민지체제의 구조적 조건에서는 네덜란드 독점자본과 인도네시아 토착농민 양자에게 모두 일정하게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어쯔(Geertz 1963, 91)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당공장으로서는 분산되고 개별화된 무수한 토지소유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탕수수의 재배를 농지의 한 단지에서 다음 단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포괄적 토지소유의 단위가 필요하였고, 농민들로서는 사탕수수 재배지역이 주기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러한 제도가 부과하는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었으므로, 토지사용권에 대한 전통적으로 공동체적인 집단적 배분과정은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기능적인 것이었다.

식민지국가는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존속시키는 한편, 토착 소규모 자영농이 상업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플랜테이션부문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봉쇄하고 나선다. 예컨대 1923년 식민지국가는 도지사(Resident)가 허가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제당공장들이 소규모 자영농의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것을 금지한다.(Elson 1984, 117) 1932년에는 소규모 자영농의 고무수출이 플랜테이션 고무수출의 71.5%로 동결됨으로써 소규모 자영농의 고무재배가 50% 이상 감소된다. 더욱이 소규모 자영농의 고무수출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며, 1936년의 경우 그 세액이 소규모 자영농에 의한 고무 수출액의 무려 95%를 상회하게 된다.(Robison 1982, 49; Kahin, 1952, 23)

로비슨(Richard J. Robison 1982, 49)이 요약하는 바와 같이, 국가독점적 수탈기제의 형식적 해체에 따라 “국가는 노동의 강제와 작물의 공출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중단하고, 식민지 플랜테이션경제의 재생산을 위한 일반적 조건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식민지국가는 식민지인여의 생산과정에 대한 네덜란드 본국자본의 효율적 지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온존시키고, 인도네시아 토착농민으로부터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본국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적 및 비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어쯔(Geertz 1963, 50)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그러한 네덜란드 식민지체제를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및 ‘관료자본주의(bureaucratic capitalism)’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강제재배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독점적 수탈기제의 공식적 해체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수탈을 여전히 식민지국가 관료기구의 전면적 지원에 의존하였던 자유경제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유경제제도의 그러한 ‘관료자본주의’적 성격은 가혹한 수탈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1901년 네덜란드정부가 채택한 이른바 ‘윤리정책(Ethical Policy)’으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식민지국가의 역할이 광범하게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강화된다.

그와 같은 국가독점적 수탈기제는 비농업부문에서의 토착 자본가계급의 형성은 물론 농업부문에서의 토착 지주계급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 그에 따라 토착 농민의 토지소유가 영세한 규모로 광범하게 분산되고, 식민지사회의 계

급구조는 전반적 미분화단계에 머물게 된다.(Robison, 1986, 10-18) 네덜란드의 국가독점적 기제를 통한 직접적 수탈로 인하여 식민지국가와 본국자본이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을 통한 식민지잉여의 생산에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의 이전에 이르는 수탈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수탈의 직접적 주체로서 기능하게 됨에 따라, 식민지 수탈의 매개를 위한 토착 지주계급의 형성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최소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Ⅳ. 필리핀 : 자유무역과 계급구조 양분화

1565년 이후 스페인에 의한 식민화 과정에서 필리핀군도는 적어도 18세기 후반까지는 인도네시아군도에 비하여 외부 상업자본의 침투로부터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강력한 중상주의적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방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이기 보다는 압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토착민중의 저항에 대처하여 집권적 식민지체제를 구축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경쟁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필리핀군도에 대한 독점적 패권을 수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식민지경영의 비용은 대내적으로는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생산물의 강제공출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잉여의 관료적 수탈을 통하여 조달되고, 대외적으로는 또 하나의 식민지 멕시코--'신스페인(New Spain)''--로부터의 정기적 보조금 및 마닐라항을 통한 중국과 멕시코 사이의 중계무역을 통하여 조달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외부의 수입원이 존재하는 한, 식민지의 전통적 생산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내부의 수탈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은 그리 절실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통적 자급농의 상업농화를 자극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대한 필리핀군도의 본격적 편입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된 것은 스페인이 아니라 주로 영국의 상업자본이었다. 점증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민지국가는 1782년 담배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국가독점에 착수하고, 1785년 스페인 본국과의 상업작물 직접교역을 위한 왕립필리핀회사(Royal Company of the Philippines)를 설립함으로써 국가독점적 수탈기제에 대한 제한된 실험에 착수한다.

그러나 식민지국가는 더욱 가중되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1789년 이후

단계적으로 외국의 선박 및 회사에 대한 각종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특히 1821년 멕시코의 독립--과 그로 인한 외부 수입원의 실종은 세계시장에 대한 필리핀군도의 상대적 고립을 마감하는 최종적 계기로 작용한다.

대내적 자유기업과 대외적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간접적 수탈기제의 정립을 초래하는 필리핀군도의 본격적인 세계시장 편입과정은 19세기 중반에 절정에 이르게 된다. 스페인은 1834년 왕립필리핀회사의 해산과 더불어 마닐라항을 외국자본의 대외무역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1855년에는 식민지의 모든 항구를 외국자본의 대외무역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자유무역적 수탈기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무역적 수탈기제의 최종적 정착과 더불어, 필리핀군도는 점차 '스페인 국기가 나부끼는 영국과 중국의 식민지'로 전환된다.(Constantino 1975, 110) 1856년에 이미 필리핀의 대외무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13개의 외국상사들 가운데 7개는 영국회사, 2개는 미국회사였다. 1880년에서 1894년 사이에는 영국과 미국이 필리핀 수출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특히 영국은 필리핀 수입시장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 본국의 비중은 1890년의 경우 필리핀 총무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민지의 상업망과 금융망을 지배 하였던 화교자본은 외국상사와 토착농민 사이에서 수출작물을 수매하고 수입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식민지인여의 수탈을 증대하고 있었다. 전통적 자급농의 급속한 상업농화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면 4종의 주요 상업작물--사탕수수, 카카오, 담배, 삼--이 총경지면적의 36%를 잠식하게 되고, 필리핀은 주곡인 쌀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다.(Seekins 1984, 10; Owen 1971, 104; 120; 124-25)

효과적인 국가독점적 수탈기제가 결여된 상황에서, 생산구조의 급격한 전환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던 토지가 민간지주들에게 급속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식민화 초기의 2세기 동안 스페인 식민지국가는 식민지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어떠한 체계적 대안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한 채,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수탈을 위하여 각 지방에 침투한 천주교의 종교적 위계구조와 촌락공동체의 전통적 지배집단(principalia)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식민화 이전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산관계가 점진적으로 해체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에 대한 지배가 개별화되어 천주교 수도회와 토착 지배집단에 집중되어 간다.(Corpuz 1957, 56; 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주에 의한 토지집중이 본격화되는 것은 상업작물의

재배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18세기 말 이후의 일이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국계 혼혈 필리핀인(mestizo)이 교회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민에게 전대하거나, 농민이 점유하는 토지를 담보로 고리대금하거나, 지방관직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토착 지주계급의 한 분파로 부상하기 시작한다.(Larkin 1972, 48-56; 58-62; 85-88) 특히 자유무역적 수탈기제가 정착되고 자급농의 상업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19세기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토착 지주계급의 가장 막강한 분파로 성장하게 된다. 예컨대 1875년 루손(Luzon)지역 최대의 농장 226개 가운데 165개는 중국계 필리핀인을 비롯한 토착지주, 55개는 스페인계, 나머지 6개는 기타의 유럽계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Sturtevant 1958, 31; Larkin 1972; McCoy et al. 1982)

그러나 자유무역적 수탈기제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국가독점적 수탈이 지속되는바, 상업농화에 따라 이미 신흥 지주계급이 대두한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담배재배 지역의 경우에는 담배의 재배, 집하, 판매를 대행한 전통적 지배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며, 담배에 대한 국가독점이 폐지된 1880년 이후에야 새로운 지주계급이 부상하게 된다.(McCoy et al. 1982, 21-37; de Jesus 1980)

농민들 사이에 서구적 토지사유제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주들은 각종 합법적 및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작농민의 토지를 겸병한다. 스페인 식민지국가는 최종적으로 1880년 토지 소유권의 확인, 미개간 공유지의 불하, 토지 소유권의 양도 등에 관한 근대적 법절차를 마련하고, 소유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지방위원회들에 대한 지주들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함으로써 이미 진행된 지주계급의 형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따라서 루손지역에 등장한 전통적 아씨엔다(hacienda) 및 근대적 플랜테이션은 대부분 경작농민의 토지에 대한 공공연한 점탈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Sturtevant 1958, 31-33; Bauzon 1975, 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필리핀군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소규모의 상업농 및 자급농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시대 초기인 1902년에 이르러서도 전체농가 가운데 소작농의 비율은 아직 18%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비율이 30%를 초과한 7개의 도(province) 가운데 6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루손 중부지역에만 편재되어 있었던 것이다.(Owen 1971, 124)

그와 같은 토지소유의 집중과정은 1899년 미국이 스페인을 승계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어, 1918년에 이르면 전체 농가호수 가운데 소작농의 비율이 25%를 상회하게 된다. 총경지면적이 1902년에서 1938년 사이에 3배 이상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 이르면 소작농의 비율이 30%를 넘는 도가 25개로 늘어나고, 그 가운데 7개의 도는 50%를 넘게 되며, 심지어 70%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미국시대의 이와 같은 가속적 토지집중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필리핀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바로 강력한 토착 지주계급의 형성을 의미하였다. 예컨대 1939년 전체 농가의 99.7%가 필리핀인이었으며, 그들은 총경지면적의 98.6%를 소유하고 있었다.(Owen 1971, 120; Kerkvliet 1977, 24; Golay et al. 1969, 79)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한 근대적 비농업부문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필리핀 토착자본의 참여가 소매, 금광, 제당, 금융부문 등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본이 여전히 도매, 수출입, 광업, 농산물 가공, 금융부문 등을 지배하였고, 화교자본은 소매부문을 지배하는 한편 도매부문 및 수입부문에 참여하고 있었다.(Golay et al. 1969, 30-31) 따라서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으로 계급구조의 극단적 양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농업부문에 비하여 비농업부문에서는 계급구조의 그러한 대조적 특성이 현저히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농업부문에서도 토착자본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대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대조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시대에 조성된 현상(status quo)에 대한 추인과 합리화’(Owen 1971, 104)로 규정되는 미국 식민지정책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것이었다. 미국 식민지국가는 필리핀 식민지 경제의 비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자본의 침투를 허용하면서도, 정치적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농업부문은 토착 지주계급을 위하여 유보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필리핀의 토착 지주계급은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동맹세력이었으며, 그 가운데 다수는 직접 식민지 국가기구의 다양한 위치에 포섭·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변형이야말로 식민지체제의 효율적 재생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였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필리핀 토착 지주계급의 토지는 미국시장에 공급되는 다양한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식민지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였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스페인시대에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연계로 인하여 형성된 토착 지주계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상업자본이 지배적이었던 네덜란드와는 달리 산업자본이 지배적이었던 미국경제의 높은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인을 위한 필리핀’을 표방

함으로써 필리핀의 토지에 대한 토착 지주계급의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수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미국시대 초기의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총독이 선언한 바와 같이(Constantino 1975, 292), “필리핀인을 위한 필리핀”이라는 원칙을 이 군도 민중의 물질적, 정신적, 지적 복지를 증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기 민중 사이에 미국상품 및 물자의 공급을 위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이며, 이는 미국-필리핀관계를 우리의 상사와 공장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본국의 강력한 농업자본은 미국시장에서의 필리핀 상업작물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필리핀농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식민지정책에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었다.(Friend 1965, 5)

따라서 1902년의 토지법은 1901년 현재 총토지면적의 90%를 상회하고 있었던 공유지를 식민지국가가 불하 또는 임대할 경우의 최고한도를 개인에 대해서는 16 ha, 법인에 대해서는 1,024 ha로 설정함으로써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가 추진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플랜테이션의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대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축소 또는 재분배를 위한 어떠한 시책도 고려된 적이 없다. 식민지국가가 매입한 방대한 교회소속의 농장들조차도 토지 투기자들에 대한 무제한적 영가 불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지의 범주에서 제외된다.(Endrigna 1970, 397-413; Owen 1971, 105; Bauzon 1975, 13-15) 더욱이 1910년대의 토지 등기사업은 토지의 사유제도를 정상화하려는 당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및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무수한 경작농민들의 소유권이 대부분 지주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다. 식민지국가의 증여세, 상속세, 수출세 등에 대한 감면정책도 결국 지주계급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일방적 특혜로 귀결된다.(Constantino 1975, 229; Sturtevant 1958, 72-84; Owen 1971, 129-56)

그와 같은 토지정책 및 조세정책과 더불어 미국 식민지국가는 1909년에서 1911년 사이의 각종 관세법규를 통하여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무역에 대한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미국시장을 겨냥한 자유무역적 수탈기제를 완성한다. 오웬(Norman G. Owen 1971, 118)의 표현을 빌면, 그와 같은 자유무역적 수탈기제는 “미국 공업제품과 필리핀 원자재의 교환은 공평한 준영구적 관계”라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필리핀의 연평균 총수출은 스페인시대 말기인 189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6배 이상 증가된다. 1899년 현재 필리핀 총수출의 18%와 총수입의

9%에 그치고 있었던 미국시장의 기여도는 1933년에 이르러 각각 83% 및 64%로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4종의 상업작물--사탕수수, 카카오, 삼, 담배--이 스페인시대에서 미국시대의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총수출의 약 90%를 차지하였다.(Owen 1971; Hartendrop 1958, 28) 따라서 자유무역적 수탈기제는 상업작물의 수출과 공업제품의 수입을 주축으로 하는 생산구조에 대한 필리핀 지주계급의 기득권을 강화함으로써 필리핀 경제의 식민지적 종속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과정에 있어서 미국시대는 스페인시대의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연장이었고 할 수 있다. 스페인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사적 지배의 확산에 따라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에 관한 공동체적 생산관계가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간다. 필리핀에 대한 외국 상업자본의 침투와 그에 따른 상업작물 재배의 점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식민지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식민지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체계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현실적 지배가 점차 개별화되면서 토착 지주들에 의한 토지의 집중이 전개된다. 그러한 토지집중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스페인의 위상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다른 외국자본의 경쟁적 압력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적 수탈기제가 정립되는 19세기 초반 이후에 더욱 본격화된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이 필리핀 토착 지주계급을 위한 편파적 토지정책 및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적 수탈기제를 완성함에 따라, 그러한 간접적 수탈은 토지와 노동의 조직 및 동원을 통한 식민지잉여의 생산으로부터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의 이전에 이르는 수탈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수탈의 직접적 주체로서 토착 지주계급의 형성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독점을 통한 직접적 수탈이 초래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토지 소유의 광범한 분산과 그로 인한 계급구조의 전반적 미분화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에서의 자유무역을 통한 간접적 수탈은 토지 소유의 고도의 집중과 그에 따른 계급구조의 극단적 양분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V. 결 론

장기간에 걸친 유사한 식민화과정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직후의 탈식민화단계에 이르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그 계급구조에 있어서 각각 전반적 미분화와

극단적 양분화라는 제3세계의 대조적 유형을 대표하고 있었다. 식민화과정의 근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형성되었던 그러한 대조적 계급구조는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두 식민지사회에 대한 국가독점적 기제를 통한 직접적 수탈과 자유무역적 기제를 통한 간접적 수탈이라는 상호 대조적인 역사적 과정의 구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한 영국의 네덜란드에 대한 전략적 배려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군도에 대한 독점적 패권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식민지잉여가 초기에는 본국 민간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를 통하여, 후기에는 식민지국가의 관료기구와 본국 독점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수탈되는 과정에서 식민화 이전의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본질적 요소가 식민지 수탈기제에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독점자본이 지배한 대규모의 근대적 플랜테이션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토착사회를 위하여 유보된 소규모의 근대적 상업농부문과 전통적 자급농부문에서는 토지소유가 광범하게 분산됨으로써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조가 전반적 미분화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이 초기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방대한 식민지로 인하여 필리핀군도에 대한 본격적 수탈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후기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그 위상의 약화로 인하여 다른 외국자본의 경쟁적 도전에 굴복함으로써 식민지국가와 본국 민간자본을 통한 직접적 수탈 대신에 토착 지주계급의 경쟁적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탈하는 자유무역기제가 정착된다. 한편, 미국은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막강한 위상과 식민지체제에서의 토착 지주계급의 전략적 위상 때문에 간접적 수탈을 위한 자유무역기제를 완성하게 된다. 그 결과 근대적 상업농부문과 전통적 자급농부문에서 동시에 토착 지주계급의 토지집중이 가속화되고, 식민지사회의 계급구조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것이다.

국가독점을 통한 직접적 수탈이 초래한 계급구조의 미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간접적 수탈이 초래한 계급구조의 양분화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두 식민지사회에 등장하는 정치엘리트의 대조적 성격에 대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탈식민화 이후의 대조적 국가-사회 관계를 초래하게 된다.(Park 1988, 49-75)

계급구조가 전반적 미분화단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탈식민화과정은 주도하게 되는 민족주의적 정치엘리트는 독자적인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집단으로서 그 계급적 성격이 모호하였으며, 따라서 이념적 및 조직적 결속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철저히 배제하였

던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와 동일화됨으로써 외면적으로 거의 일치된 '사회주의'에의 경도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Kahin 1952, 52),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적 기반 또한 결여되어 있었던 그들이 표방한 '사회주의'의 내면적 다양성에는 이미 참여한 갈등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었다.

추상적 이념의 동질성에 내재된 구체적 지향의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민족주의적 정치엘리트의 공동의 이해는 탈식민화 이후 국가의 강력한 정치적 및 경제적 역할에 있었으며, 사회세력의 구조적 취약성은 국가의 그와 같이 광범한 자율성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탈식민화 이후 초기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엘리트의 내재적 갈등이 현실화되고, 결국 국가의 강압기구를 관리하고 있었던 군부가 국가권력을 전면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권위주의체제로 전환되는 인도네시아 정치변동의 사회구조적 조건은 이미 식민지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급구조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었던 필리핀의 경우, 민족주의적 명분을 선점하는 데 성공한 정치엘리트는 주로 식민지체제에 경제적으로 포섭된 강력한 지주계급에서 배출되며,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국가기구에 조직적으로 포섭된다. 그들의 독자적인 물질적 토대의 동질성--토지--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외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고도의 내면적 동질성을 초래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물론 제3세계 식민지사회 정치엘리트의 일반적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여하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게 된다.(Myrdal 1968, 387)

그들의 물질적 이해가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 동일화될 수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양자 사이의 차별성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모호하였던 탈식민화과정에서 그들이 표방한 민족주의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잠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른바 '형식적 탈식민화' 이후에도 부단히 전개되는 '진정한 탈식민화'를 둘러싼 필리핀의 사회적 갈등은 이미 식민지시대에 배태된 것이었다. 그것은 탈식민화 이후 초기의 민주주의체제에서 경제적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최소화되었던 국가의 기생적 성격, 그의 극복을 명분으로 한 권위주의체제의 시도, 그리고 그러한 시도의 궁극적 실패 등을 초래하게 된 필리핀사회의 구조적 조건--강력한 지배계급--은 바로 식민지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수탈양식의 유형과 수탈의 효율성 사이에는 일반화가 가능한 어떠한 상관관계도 정식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여 들 필요가 있다. 제3세계의 각 식민지사회에 주어진 구체적인 역사적 및 구조적 조건이 특정의 수탈기체에 대한 선택을 초래하였을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국가독점적 수탈기제와 자유무역적 수탈기제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독점을 통한 직접적 수탈이든 자유무역을 통한 간접적 수탈이든 그 효율성은 객관적인 대내적 및 대외적 조건에 대한 각 수탈기제의 대응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⁷⁾

7) 국가독점을 통한 직접적 수탈이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한 간접적 수탈이 이루어진 필리핀에 비하여 식민지시대의 전기간에 걸쳐 훨씬 방대한 규모의 수출초과가 유지된다. 예컨대, 1830년대에서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출 대 수입의 비율이 인도네시아는 줄곧 약 10 대 3이었음에 비하여, 필리핀은 6 대 5 정도였으며, 20세기 전반의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5 대 3 가량에 비하여 필리핀은 약 20 대 19에 달하였다.(Golay 1976, 369-70: 379)

참 고 문 헌

- 김응진·박찬욱·신윤희 편. 1992. 『비교정치론 강의 I』. 서울: 한울.
- 이병천·박형준 편. 1992.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I』. 서울: 의암출판.
- Bauzon, Leslie E. 1975. *Philippine Agrarian Reform, 1880-196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Boeke, J. H. 1954. "Three Forms of Disintegration in Dual Societies." *Indonesi'e*, Vol. 7, No. 4.
- _____. 1961. *Indonesian Economics*. Hague: W. van Hoeve.
- Boserup, Ester.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The Economics of Agrarian Change under Population Pressur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 Bunge, Frederica M., ed. 1984. *The Philippines: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 Cardoso, Fernando H., and Enzo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roll, John J. 1965. *The Filipino Manufacturing Entrepreneur: Agent and Product of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onstantino, Renato. 1975.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From the Spanish Colonization to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Corpuz, Onofre D. 1957. *The Bureaucracy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Dahm, Bernard. 1969. *Sukarno and Struggle for Indonesian Independ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e Jesus, Ed. C. 1980. *The Tobacco Monopoly in the Philippines: Bureaucratic Enterprise and Social Change, 1766-1880*.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Diesing, Paul. 1972. *Patterns of Discovery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Elson, R. E. 1984. *Javanese Peasants and the Colonial Sugar Industry: Impact and Change in an East Java Residency, 1830-19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ndrigo, Jose N. 1970. "The Friar Lands Settlement: Promise and Performance."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14, No. 4 (October)

Evers, Hans-Dieter, ed. 1980. *Sociology of South-East Asia: Readings on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Friend, Theodore. 1965. *Between Two Empires: The Ordeal Of the Philippines, 1929-1946*.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urnivall, J. S. 1939.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56.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lay, Frank H., et al. 1969.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1976. "Southeast Asia: The 'Colonial Drain' Revisited." C. D. Cowan and O. W. Wolters, eds. *Southeast Asian History and Historiogra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artendrop, A. V. H. 1958. *Histo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Philippines*. Manila: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Hayami, Yujiro, et al. 1990. *Toward an Alternative Land Reform Paradigm: A Philippine Perspective*.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Kahin, George M. 1952.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Kerkvliet, Benedict J. 1977. *The Huk Rebellion: A Study of Peasant Revolt in the Philippi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rkin, John A. 1971. "The Causes of an Involutated Society: A Theoretical Approach to Rural Southeast Asian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 No. 4 (August)

—————. 1972. *The Pampangans: Colonial Society in a Philippine Provi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Coy, Alfred and Ed. C. de Jesus, eds. 1972. *Philippine Social History: Global Trade and Local Transformations*.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Montgomery, Roger and Toto Sugito. 1980. "Changes in the Structure of Farms and Farming in Indonesia Between Censuses, 1963-1973: The Issue of Inequality and Near-Landlessnes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11, No. 2 (September)
-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Vol. 1.
- Owen, Norman G., ed. 1971. *Compadre Colonialism: Studies on the Philippines Under American Ru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Panglaykim, J. and Ingrid Palmer. 1969. *State Trading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Rotterdam: Rotterdam University Press.
- Reid, A. J. S. 1980. "The Origins of Poverty in Indonesia." In Ross Garnaut and Peter Mclawley, eds. *Indonesia: Dualism, Growth and Poverty*.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Ricklefs, M. C. 1981.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obison, Richard J. 1982.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 Indonesia."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14, No. 1 (January-March)
- . 1986. *Indonesia: The Rise of Capital*. Sydney: Allen & Unwin.
- Saul, John S. 1979. *The State and Revolution in Eastern Af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mers. 1980.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History and Society*, No. 22.
- Sturtevant, David R. 1958. "Philippine Social Structure and Its Relations to Agrarian Unrest."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Sutherland, Heather. 1979. *The Making of a Bureaucratic Elite: The Colonial Transformation of the Javanese Priyayi*. Singapore: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Van den Muijzenberg, Otto D. 1975. "Involution or Evolution in the Philip-

pines.” Peter Kloss and Henri J. M. Claessens, eds. *Cultural Anthropology in the Netherlands*. Rotterdam: Nederlandse Sociologische en Antropologische Vereniging.

Van der Kroef, Justus M. 1960. “Land Tenure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Java.” *Rural Sociology*, Vol. 15, No. 4 (December)

_____. 1963. “Pesant and Land Reform in Indonesian Communism.”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4, No. 1 (March)

Wertheim, W. F. 1959. *Indonesian Society in Transition*. Hague: W. van Hoeve, 1959.

Wurfel, David. 1979. “Elites of Wealth and Elites of Power, the Changing Dynamic: A Philippine Case Study.” *Southeast Asian Affairs*, No. 5.